

EU, 와인산업 개혁 제안

유 찬 희*

유럽연합(EU) 농업에서 와인산업은 전체 생산액 기준으로 밀과 비슷한 수준이고, 연간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 과잉 기조와 경쟁 심화로 유럽지역의 와인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7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와인산업 개혁안을 채택하였다. 이 안은 기존의 불필요한 지지수단 철폐,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쟁력 제고, 라벨링 규정의 간소화, (해외) 관측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회 등에서 채택되면 이 개혁안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1. EU 와인산업 개황

1.1.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국

EU는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국이고, 농업부문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탕수수나 올리브유 이상이고 밀과 맞먹을 정도이다. 특히 남부 유럽의 국가(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 와인 생산량이 농산물 생산량의 10% 이상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도 와인 재배 면적의 절반이 EU 내에 분포해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표 1 농업 생산액 중 와인 생산액 비중

단위: %

구분	EU-27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와인	4.8	3.1	2.8	12.2	8.2	11.0	2.4	8.4	13.3	8.4
올리브유	1.8		5.6		5.1				1.8	
밀	4.9	6.1	2.4	8.0	3.0	4.0	8.1	2.6	0.4	2.1
사탕수수	1.3	1.9	0.9	1.5	1.0		1.5	1.6	0.2	0.8

주: 2002~06년 평균 기준

자료: Eurostat

지난 5년 동안 EU 가맹국들은 연평균 1억 8,500만 헥토리터*의 와인을 생산하였고, 생산액은 156억 유로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최대의 와인 생산국으로 5,300만 헥토리터를 생산하였고, 고급 와인이 많아 생산액 규모는 74억 유로로 EU 전체 생산액의 절반에 가깝다. 이외의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5,000만 헥토리터, 40억 유로), 스페인(4,500만 헥토리터, 12억 유로), 독일(1,000만 헥토리터, 13억 유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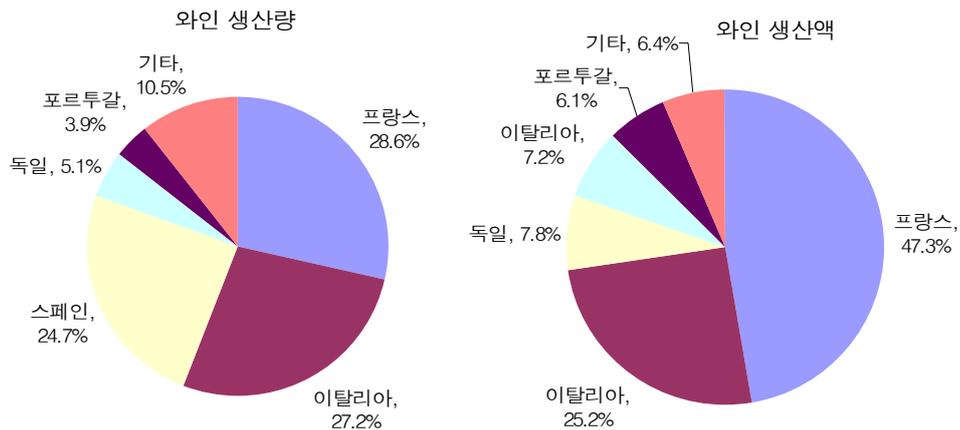
1.2. 주요 고용 창출 수단 및 농가 소득원

EU에서 와인산업은 중요한 고용 창출 수단이자 농가 소득원이다. EU에서 포도주 생산을 목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는 약 240만 호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재배 면적은 1.5ha 수준이다. 다만 루마니아는 예외적으로 95만 호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지만 평균 면적은 0.2ha 수준이다. 와인용 포도 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매우 노동 집약적이다.

2005년 기준 와인 생산 농가에서 고용한 인력은 220만 명(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이 넘고,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하면 고용 효과는 훨씬 커진다. 이는 EU 농업 부문 전체 고용 인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유럽 포도주 양조장에서 와인을 측량하는 표준 단위로 1헥토리터는 100리터에 해당

그림 1 주요 가맹국의 와인 생산량 및 생산액 비중



자료: Eurostat

EU-15에서 와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의 평균 소득은 일반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1993~99년 동안 와인 농가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평균 소득은 1999~2003년 동안 12%나 감소하였다.

와인 농가의 소득은 국가별·품질별로 차이가 크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와인 농가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와인 농가의 소득은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고급 와인과 테이블 와인 중 어떠한 것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소득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2. 유럽 와인산업의 위기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재배면적은 1986년보다 20%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 EU의 포도 재배면적은 완만하지만 계속적으로 감소(15%)하였고, 반면 경쟁국들의 재배면적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었다(미국 21%, 남아프리카 33%, 칠레 52%, 오스트레일리아 178%, 뉴질랜드 360%).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와인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결과 와인시장에서 ‘구세계(유럽)’과 ‘신세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EU는 여전히 세계 제일의 와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수출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와인 소비량이 늘고 있는 지역에서도 유럽 와인이 아닌 ‘신세계’ 와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한 라벨링 규칙에 혼돈스러워하고, 생산자들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EU의 농업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것은 위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3. EU의 와인산업 개혁안

EU는 매년 13억 유로의 재원을 와인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약 5,000만 유로가 공급과잉으로 판매처를 찾지 못한 와인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와인 초과 생산량은 연간 생산량의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 4일 EU 제안한 개혁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담고 있다. EU는 와인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고, 대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240만 와인 생산업자의 경쟁력 회복
- ② 유럽 고품질 와인의 명성 회복
- ③ 기존 시장의 점유율 회복 및 새로운 시장 개척
- ④ 명확하고 간단한 규정의 정립
- ⑤ 수급 조절
- ⑥ 최상의 전통을 부활시켜 사회적인 활력 제고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비효율적인 모든 시장 지지 조치를 철폐한다. 증류, 보관비용 보조, 발효 전 포도액(musts) 지원, 수출 보조금 등의 제도를 모두 철폐할 것이다. 또한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탕의 경우도 포도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와인 생산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금(national envelope)을 지원하여 구조조정, 품질 및 시장지향성 강화, 작목 또는 품종 전환, 새로운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와인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다만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산간 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직불제를 실시한다. 생산량 조절을 위해 green harvest(여름에 가지에 열린 포도 일부를 제거하여 가지에 열린 포도의 숫자를 줄여서 소수의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③ 식부제한 폐지를 폐지한다. 2013년부터는 식부 제한을 없앴으로써 경쟁력 있는 생산자가 규모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 ④ 현재 EU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제와인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Vine and Wine)에서 인정한 생산 방식 중 일부를 허용한다.
- ⑤ 라벨링 규정을 간소화하고 개선하여 유럽 와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지리적 표시를 받은 와인이 아니어도 병에 수확연도와 품종을 표기할 수 있다.
- ⑥ EU 와인의 판촉, 특히 해외 판촉을 강화한다.
- ⑦ 농촌개발 자금을 확충하여, 환경질을 개선하고 마케팅 강화·젊은 생산자의

창업 지원 · 전통적인 경관 유지에 기여한다.

7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 제안은 EU 의회와 이사회로 회부되어 검토를 거칠 것이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개혁안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1008&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wine/index_en.htm, Summary on wine reform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wine/index_en.htm, Factsheet: "Towards a sustainable European wine sector"